

# 진도 해상 어선 전복 7명 실종 LPG선이 들이받고 그대로 달렸다

해경 뺑소니 여부 조사... 가해 선박“사고 몰랐다”

진도 해상에서 세 동강이 난 채 전복, 7명의 선원이 실종된 사고(광주일보 5일자 1·6면 보도)는 대형 선박과의 충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경찰은 어선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뒤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선원들을 구조하지 않고 그대로 운항한 혐의로 가해 선박 관계자들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가해 선박 잡혀 = 목포해양경찰은 5일 바다에서 조업하던 어선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뒤 달아난 혐의로 한국 선적 2967t급 LPG운반선 오션

게 인근 선박과 교신한 점을 토대로 3일 밤 11시부터 4일 낮 12 40분까지 일대 해역을 항해한 선박 50척을 추적했고 또다시 사고 선박에서 2km 이내 항해한 8척을 골라내 항로 추적 조사를 벌였다.

해경은 이후 항적자료 및 영상 분석을 거쳐 광양항에 정박중인 선박에서 충돌 흔적을 확인, 당시 배를 운항한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가해 선박으로 추정하고 있는 LPG 운반선은 지난 2일 중국 산둥(山東)성 톱카우(龍口)항을 출항, 광양항으로 항해중이었고 당시 14명이 승선해 있었다.

경찰은 이씨 등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 충돌 경위, 충돌 사실을 알고도 바다에 빠진 선원들을 구조하지 않고 그대로 운항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또 용의 선박에 묻어있는 페인트 시료를 채취, 사고 선박의 것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충돌 사실조차 몰랐다”면서 도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해경은 이틀째 사고 해역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이날 오후 7시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이번엔 구미서 염소가스 누출

11명 부상 치료

5일 오전 8시 50분께 경북 구미공단 내 화공약품 제조업체인 구미메이칼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이 회사 직원이 탱크로리에 든 액체 상태의 염소를 발בל을 통해 옮기는 과정에서 송풍기가 고장 나 염류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구미메이칼 손종만 이사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전기적인 문제로 송풍기가 고장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공장 내부에 있던 염소는 액체 상태에서 1도였으나 기화되는 과정에서 400도 로 늘었다.

업체측은 이 가운데 50도 정도가 외부로 유출되고, 나머지는 정화시설을 거쳐 처리됐다고 밝혔다.

염소가스를 충전하던 공장 직원 서

모(35)씨가 가스를 들이마셔 호흡곤란 증세로 구미 순천향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서씨는 그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공장 직원 10명도 비슷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누출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후 5시까지 인근 주민 124명이 진로 받았다.

▲염소가스=황색의 자극적 냄새가 나며 매우 작은 양에도 독성이 강하고, 식염용액을 전기분해해 만든다. 강한 살균·표백 작용으로 살균제나 표백제의 원료로 쓰이는데 공기 중에 미량이라도 논, 코, 목의 점막에 닿으면 피부나 살이 짓무르고 이가 부식되는가 하면 기관지염을 일으킨다.

# 나원침 (8767) 김종두



‘의문사’ 김훈 중위  
순직 인정 보상 가능

군 의문사 사건의 희생자인 김훈 중위가 군 당국으로부터 순직 인정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5일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공무상 연관성이 있으면 순직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전공상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김 중위를 순직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 중위는 지난 19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초소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예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 동거녀 접근금지 어진 60대 교도소행

○가장폭력으로 입건된 60대 교도소행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다가 교도소 신세.

○장흥경찰은 5일 가장폭력 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60)씨를 교도소에 유치.

○A씨는 지난 1월 20일 1개월가량 별거한 동거녀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는데 A씨는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도록 한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몇 차례 동거녀에게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가 교도소행.

/장흥=김흥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 봄바다 짙은 안개 큰 사고 부른다

3월~6월 전체사고 32%

조업에 나섰던 어선이 전복, 7명의 선원이 실종된 가운데 봄철 짙은 바다안개로 인한 해상 교통사고 주의보가 내려졌다.

봄철 이맘때 낮과 밤의 기온차로 안개가 짙게 끼는데다, 바다 안개는 국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진도 어선 전복 사고도 당시 해상에는 북서풍 8~10m/s, 파고는 1~2m, 시정은 1마일로 비교적 기상상태가 양호한 편이었으나 안개

안개로 해남군 문래면 일하고 남방 0.8km 해상에서 항해중이던 예인선 S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해 침몰, 유람선에 타고 있던 김씨와 최모(65)씨가 사망하기도 했다.

경찰은 “3월부터 6월 사이 해수면과 공기의 온도차이로 인해 짙은 해무가 자주 발생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선박 간 충돌 및 좌초 등 해양사고 발생 비율이 높다”고 말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출항 전 조난신호기와 같은 구난장비를 점검하고 구명동의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열기자 halo@kwangju.co.kr /여수=김청희기자 chkim@



건축폐자재 아적장 불

5일 오후 4시20분께 광주시 서구 마북동의 한 건축폐자재 아적장에서 불이나 소방서 추산 45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집플 등 3300㎡(약 1000평)를 태운 뒤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수갑 안 풀리면 잘라라... 경찰, 절단기 구입 '눈총'

광주지방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 ‘수갑 절단기(사진)’를 구입,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피의자 손목에 채운 수갑을 풀지 못해 119 구조대에 요청했다가 ‘뉴스거리’가 되는 일을 막자는 데서 나온 방안이다. 경찰조차 못만는 수갑을 누구에게 사용해야 하는 지, 장비 타탄 하는 건 아닌 지 시선이 쏠린다.

광주경찰청은 5일 119 구조대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절단기를 구입해 형사과에 비치토록 하고 이후 수갑 고장과 같은 사례 발생시 사용토록 했다.



광산경찰이 지난 3일 감간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던 김모(50)씨의 수갑을 풀지 못해 119에게 요청하는 등 경찰 체면을 구기는 일을 하지 말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

소방력 낭비를 막자는 말도 나왔다. 서부경찰은 앞서 4일 광산경찰 사례를 감안, 자체적으로 구

입했다.

경찰청은 또 수갑을 잃어버리는 경우에 대비해 열쇠도 수갑 종류별로 준비해놓을 것을 일선 경찰에 권고했다. 수갑 해프닝은 지난해 11월 북부경찰에서 수갑 열쇠가 부러지면서 119에 요청하는 등 경찰 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소문이다.

하지만 경찰조차 만지 못해 절단기까지 구입해놓고 사용하는 수갑을 과연 범죄 피의자에게 채울 수 있을 지 벌써 우려가 나온다.

“평상시 관리도 제대로 안하면서 장비 타탄 하는 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을기자 dok2000@

# 경찰, 서울국세청 압수수색

직원 뇌물수수 의혹

경찰이 기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들의 뇌물수수 의혹 등과 관련, 5일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지능범죄방사대는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소속 수사관 3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세무공무원들이 담당한 기업에

등 5~6개 기업으로부터 약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금품의 대가성, 세무조사 과정에서 각종 부당행위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이 행진 자금 중 수천만원씩이 당시 과장·국장급 간부에 게 상납된 정황도 포착, 조직적인 상납 사실이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담당 과장·국장급 간부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해당 간부를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눈은 인간의 기능과 연관이 있다. 눈의 과로한 환경과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뜻밖의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고뇌와 분노로 말미암아 간기능이 울결되어 화(火)로 변하면 그 화기가 인체 상부 즉 머리와 눈으로 뿜어져 눈이 침침하고 아득할 정도로 피로해진다. 이러한 증상을 **안구건조**라 한다.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며 눈을 잘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인다라한의원**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광주점 062-368-5075**

www.indara.co.kr 광주은행 6층(신세계대형점사내)

**현대인 누구나 겪고있는 스트레스성 질환의 해결법**

###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해결책을 찾다!

이것이 건조하고 피곤한 눈피로의 해결법 | 스트레스와 과로에서 오는 만성피로 증상과 해결법

**눈의 피로의 다양한 증상들**

- 책이나 가까운 물체를 잠시 바라봐도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거워진다
- 눈이 몹시 쨍쨍하고 눈알이 아프다
- 오후만 되면 눈이 팽팽해지고 눈알이 부어진다
- 다른사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기 어렵다
- 마음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낸다
- 입이 쓰거나 마르고 가끔 얼굴기가 걸리거나 아프다

**Home Doctor** 시리즈 출간 전국서점 판매중

인다라한의원 광천점  
원장 김동진

## 15일간 백두산약이 드리는 최고의 봄맞이 선물

# 의류전품목! 무조건 50%

**주)백두산약** 무등산점 062-236-1187